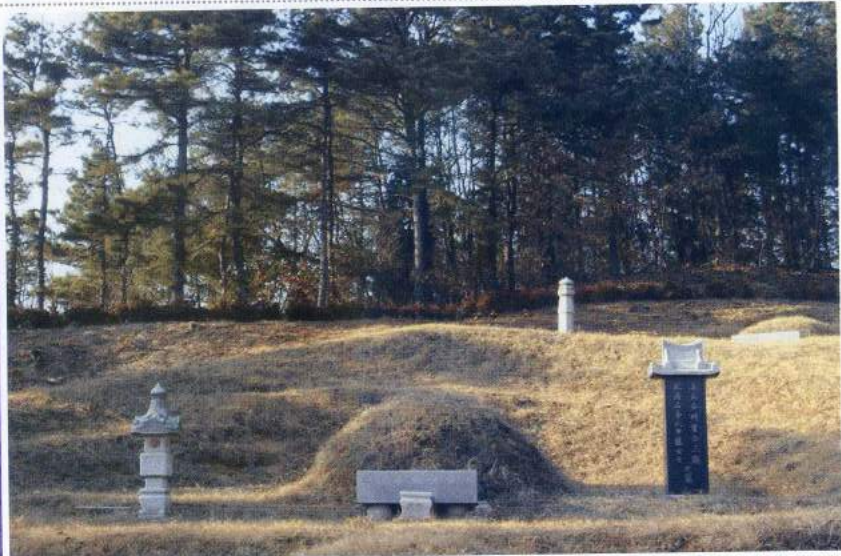


항일의병 최삼현 묘소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산 30



〈의병 최삼현〉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산 30번지에는 의병 최삼현(崔三顯, 1890~1953)의 묘소가 있다. 최삼현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잔갈(일명 호느실)에서 태어났다. 그가 처음 항일투쟁의 길로 접어든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 군대가 고향땅을 점령한 시점이었다. 그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일본군 습격사건'으로 인해 고향에서 더 이상 은신할 수 없어 조카와 함께 경기도로 올라와 숨어 지냈다.

이후 최삼현은 1907년 13도 창의군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허위 의병부대 휘하의병으로 참전하였다. 연합의병 부대의 폐퇴로 인해

경기 일대 산간지역으로 은신하여 숲장수로 몸을 감추면서도 친일파들을 습격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은신하는 수개월 동안 빈 독속에 숨어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때 부상을 치유하지 못해 평생 손가락하나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다 1912년 용인 백암면 가창리 두평마을에 들어선 최삼현은 일행과 헤어져 인근 학자골에 머물며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를 착실하게 본 이웃집의 무남독녀와 혼인하게 된다. 최삼현은 1933년부터 가창리 가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가를 이루었는데, 일제 식민통치기간 내내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을 때에는 해방된 기쁨에 백암면 사무소 마당(현 백암우체국)에 가족이 모두 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최삼현은 1953년 63세의 나이로 작고하였고, 후손들이 묘비에 항일의병임을 새겼다.



〈백암 우체국〉

안도



▶ 참고문헌

- 이상표, 『아름도 명예도 없이 스러져간 항일의병』, 《용인시민신문》 2004년 11월 4일자.
- 김명설, 『1907년 어느 의병의 삶과 투쟁』, 『용인항토문화연구』 제8집 2007.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백암면지』, 2006.

▶ 찾아가는 길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우회전 → 38번 국도 충주, 장호원 방향 30km-한택식물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차하여 걸어서 10분.

▶ 주변 볼거리

- 한택식물원 :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153-1 일대, ☎ 031-333-6731

항일지사 오의선 선생 생가와 묘소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659-2



《오의선의 생가》

애국지사 오의선(吳義善, 이명 義善) 1889~1931) 선생은 용인시 원삼면 죽릉리 669번지에서 태어나 보성전문학교를 다녔으며 일본 도쿄에 유학하여 메이지(明治)대학에 다니면서 신학문을 수학 하였다. 1919년 그는 도쿄 한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선포한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다. 이후 고향에 들렀다가 3월 21일 원삼지역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8개

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였다.

상하이에서 오의선은 경기도 대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나아가 임시정

부에서 세칙제정위원, 청원법률 심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약하였다. 1921년에는 북경을 거쳐 만주지역으로 건너가 서북간도 노령지역의 무장독립운동세력의 통일에 노력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서 《시대일보(時代日報)》 기자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민족혁명이념으로 전파된 사회주의에 공감하였다. 그는 네 차례의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사회주의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투옥된 동지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국제혁명자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국내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대대적 검거 선봉으로 인해 고향인 죽릉리로 몸을 피하고 있다가 1931년 3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심한 고문으로 그 해 5월 6일 옥중에서 42살의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04년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고향 용인에서 선양행사를 가진 바 있다. 원삼면 죽릉리에는 선생이 일경에 체포되기 전까지 살던 생가가 현재까지 남아있어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인근 선산에 선생의 묘소가 있다.

약도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5권
- 채영국, 《오의선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04.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삼 청룡말 방면 버스(11번)이용 죽릉리 어현마을 하차 문촌리 방면으로 2km 도보이동.
- 자가용 : 원삼면 사무소에서 죽릉리 방면으로 4km지나 어현교 건너 문촌리 방면 1.8km 직진

주변 볼거리

- 외우정사 :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산43 ☎ 332-2472
- 우리랜드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174 일원 ☎ 031-324-4021
- 동지박물관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산1-2번지 ☎ 031-333-6789
- 문수산 마애불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산25-1 ☎ 031-334-1728

순국열사 김석진 묘소

초인구

용인시 초인구 원삼면 죽릉리 산99-1



〈김석진 묘갈〉

김석진(金奭鎭, 1847~1910)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된 후 일제가 작위를 내려 회유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자결하여 항거한 애국지사이다.

묘소는 원래 서울시 강북구 번동 드림랜드 내에 있었으나 1993년 5월에 양주에 있던 선영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함께 옮겨졌다.

김석진은 본관이 안동이고 호는 오천(梧泉)이며 1847년 도균(道均)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종친부(宗親府)의 관직을 거쳐 사과·전적 등을 지냈다. 이어 호조참의·한성부 좌윤·호조 참

판·형조 판서·의정부 좌참찬과 광주부 유수 및 삼도 육군통어사 등을 지냈다. 1896년 특진관에 이어 비서원경·장례원경·귀족원경 등을 거쳐 1910년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그는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침탈하자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며 일제침략을 규탄하였다.

조약의 파기를 상소하는 한편, 이듬해 1월 22일에는 을사5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관료 출신을 작위나 은사금으로 회유하였는데, 김석진에게도 남작의 작위를 주며 회유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1910년 9월 8일(양력 10월 10일)에 아편을 먹고 향년 68세로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현재 한국민속촌에 있는 충현서원의 충절사에 정몽주·오달제·민영환과 함께 위패가 봉안되어 춘,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2012년 2월 국가보훈처는 김석진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충현서원 및 충절사〉

약도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1976.
-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권, 1996.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및 원삼에서 원삼 청룡말 방면 버스(11번)이용
어현교 하차 승죽골 방면 2km 이동
- 자가용 : 원삼면사무소에서 죽릉리 방면 어현교에서 우회전 승죽골 방면 4km 이동

일제약탈의 현장 - 원삼 사금광 광구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현산중학교 뒤



용인 원삼면 사암리 안골은 일제 치하 당시 금광이 발견된 이래,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인구도 급증하였다. 석금광을 중심으로 사금광이 혼재했던 1940년대의 안골은 마을 앞 농토가 금광 개발로 인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광산노동자로 전업했다. 광산은 마을에 여러 가지 폐해를 몰고 왔다. 토지와 가옥, 무덤 등을 가리지 않고 파헤쳐졌으며 마을에 소란함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현산중학교 뒤에는 채굴이 이루어졌던 폐광이 아직 남아있어 당시의 흔적을 보여준다.



〈사금광 지하갱도(현재는 메워졌음)〉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일제는 1912년부터 원삼면 일대 금광채굴을 허가해



〈원삼면 안골 전경〉

주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이르면 금광은 사암리와 미평리·고당리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 금광 소유주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이들은 조선인의 값싼 노동력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당시 신문에 의하면 금을 캐기 위한 굴착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져, 고당리에서는 면사무소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 건물이 붕괴될 지경이 있었다고 하니 그 참상이 어마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원삼면 사암리의 금광은 해방이후에도 계속 채굴되었지만 현재는 폐광되어 당시 흔적만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 환, 『용인지역의 3·1운동과 항일유적지』, 『용인항토문화연구』 6집,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 우상표, 『용인지역마을기행』, 용인시민신문사, 2006.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학동을 거쳐 원삼방면 버스(10-40)용 사암리 하차 현산중학교 뒤로 100m 이동
- 자가용 : 운학리 거쳐 굽은고개 넘어 사암리 현산중학교 진입 하차 후 100m 이동



● 정주원부대 교전지 능골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룡5리 능말 일대

정주원의병장은 임옥여(任玉汝) 등과 함께 안성·양지·죽산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908년 3월 30일 의병 80여 명을 이끌고 이곳 능골에서 숙영하던 중, 이튿날 기습해온 일본군 이천 수비대와 조우하여 약 1시간 동안 교전하였다. 이로 인해 의병 4명이 전사하였다. 그의 부대원 중에 황명운(黃明雲)이 이 마을 출신이다. 1909년 6월 13일 양지 주둔 헌병 4명이 죽산군 원삼면 소재 능촌사(陵村寺)에 잠복하고 있다가 의병 6명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의병 2명이 죽고, 1명이 체포되었다.

황명운의 후손인 황규하(90) 옹에 의하면, 능골 앞을 흐르는 한천을 사이에 두고 능골 쪽에 진을 친 의병들이 개울 건너에 있던 일본군과 마주하며 싸웠다고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 백암장터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백암면 백암장터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한 1895년부터 의병의 출현이 잦았다. 1896년 2월에는 이곳 출신 박제우가 백암장에서 거병하려 하였으며, 1906년 3월에도 30~40명의 의병이 백암 장사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이후에는 백암장에 의병이 더욱 빈번하게 출현하여 일본인과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거두어갔다. 따라서 백암장과 그 주변에서 의병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자주 벌어지기도 하였다. 1907년 9월 21일 의병 100여 명이 백암 서북방면에서 의병 토벌을 위해 파견된 일본군 부대와 교전하여 8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1월 임옥여 부대가 백암 시장에서 일진회원 등 친일파와 순검을 처단하였다. 1908년 1월과 3월 정주원 부대가 백암에서 군자금을 거두어 간 것으로 일제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백암에서도 대규모 만세시위가 발생했다. 3월 31일 오후에 현 백암면인 외사면 일대 주민 3천여 명이 백암 시장에 모여 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이 발포하자 해산하였다.

용인의 3·1 만세운동

수지구 3·1만세운동 기념탑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새마을공원내

수지구의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마을 구장인 이덕균과 안종각이 주도하여 고기리에서 시작되었다.

만세시위 행렬은 동천리와 풍덕천리로 이어지며 군중이 수백명으로 불어났으며 읍삼면 마북리(현 기흥구 마북동)에 이르자 천명이 넘게 되었다. 일제 군정은 언남리에 이른 만세 행렬에 충격을 가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안종각과 최우들이 순국하고 시위대가 흩어지고 말았다.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에 의해 이덕균은 가혹한 옥고를 치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헌병주재소에 끌려가 태형 등 처벌을 받았다.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07년부터 수지구의 3·1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수지만세운동기념탑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성금을 모금을 시작하였으며 용인시에서도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기념탑은 수지구 풍덕천동 새마을 공원에 건립 부지를 정하고 2008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다음해 5월부터 건립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11월 27일 완공되어 시민과 함께 제막식행사를 가졌다.

이 기념탑은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을 바탕으로 행정 관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건립됨에 따라 민과 관이 협력하는 모범적 선례로 남을 것으로 평가된다.

● 용인 3·1운동 유공자 유적



이덕균 묘(용인시 수지구 고기2동)

1919년 3월 29일 수지 고기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김구식 묘(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919년 3월 30일 기흥 하갈동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권중목 공적비(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1919년 3월 28일 모곡면 삼계리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홍종엽 묘(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금어리)

1919년 3월 28일 포곡면 둔전리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용인 독립운동가들의 해외 발자취

● 중국 동북부 지방

● **서전서숙(瑞甸書塾)** :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용정실험소학교 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설과 여준 등이 해외 한인의 민족교육을 위해 1906년 북간도 용정에 세운 학교이다. 초대 속장은 이상설이 맡았으며 그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자 여준은 2대 속장을 맡아 교육을 계속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재정이 어려워 결국 폐교당했다. 이후 여준은 귀국하여 신민회 활동과 이승훈과 오산학교 개교에 전력하였다. 현재 서전서숙 자리에는 용정실험소학교가 들어서 있다.



● **신흥무관학교 옛터(합리하)** : 중국 길림성 통화현 광화진 7대
여준(용인 죽룡리 출신)과 오광선(죽룡리 출신) 등이 각각 교장과 교관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양성소. 현재 이곳은 대부분 밭으로 변해있어 그 흔적만을 느낄 수 있다.



● **이홍광 장군 기념비** : 중국 길림성 신빈현 평정산 내

중국 동북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항일영웅이며 가장 높게 평가되는 이홍광(1910~1935)의 기념비는 중국에 3곳이 있다. 신빈만족자치현 북산 체육학교 동쪽에 일제가 중국인 주민 1만여명 이상을 학살한 만인갱유지(萬人坑遺址)가 있는데, 이 곳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면 항일영렬 기념비가 있다. 이 곳에서 19명 항일투사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용인출신 독립투사인 이홍광의 흉상이 서 있다. 최근 이홍광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신원리 400번지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 **여준 설립한 검성학교(儉成學校)** : 중국 길림성 교하현 남강자향

1920년 신흥무관학교가 일제에 침략에 의해 폐교당하고 경신참변(庚申慘變)으로 독립군이 크게 와해된 이후, 여준이 이 곳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웠다. 그가 교장을 맡았고, 고향의 삼악학교 시절 제자였던 오광선이 체육선생을 맡아 학생들을 조련했다. 학생은 약 1백여 명에 이르렀고, 1회 졸업생은 30명이었다.

● **김혁 체포지**

: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아포력 임업국 석두하자 경영소(조선인촌)

1928년 2월 초 일본경찰과 중국군 1개중대의 습격으로 신민부 중앙집행 위원장이었던 김혁과 경리부 위원장 등이 체포되었다. 이 마을을 길림성 중동성 해림 정거장에서 300리 떨어진 조그마한 조선인 마을로서 신민부 중앙간부들의 생활근거지였다. 체포된 김혁 등 신민부 간부 10명은 1928년 3월 10일 신의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 유럽

● 민영환 러시아 숙소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 18번지

1896년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1차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1897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 이때 이곳의 '그랜드 호텔 유럽'에 숙소를 정하였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 곳은 현재 한 기업회사 소유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원형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 이한응 영국주재 한국공사관 유적 : 영국 런던 얼스코트 트레버로드 4호

1905년 5월 12일 영국 주재 서리공사였던 이한응이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함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음독자결한 곳이다. 그는 1904년 서리공사로 임명되어 영국 등 각국 외교기관에 일제의 조선 침략을 고발하며 중립화 외교를 펼쳤으나, 다음해에 공사관이 폐쇄됨에 따라 자결하기에 이르렀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곳은 현재 서니힐이라는 회사 이름이 붙어 있다.

